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2]228-0180

www.dakajob.com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막스클럽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2(日)
흐리고 비 9 / 15℃	흐리고 비온뒤 갠 10 / 14℃

News

- 5·31지방선거 D-60 ②
- 만우절 거짓말 ③
- 위성미, 프로 첫승 보인다 ⑧



Jeollado

- 역사·왕건 '영산강 대전' ⑦

Entertainment

- 영화 '중천' 주연 정우성 ⑧
- 흥행 대박 걸었지만 '걱정' ⑨

Books

- 조선의 막후 실세 '역관' ⑩
- 경제, 날씨가 지배한다 ⑪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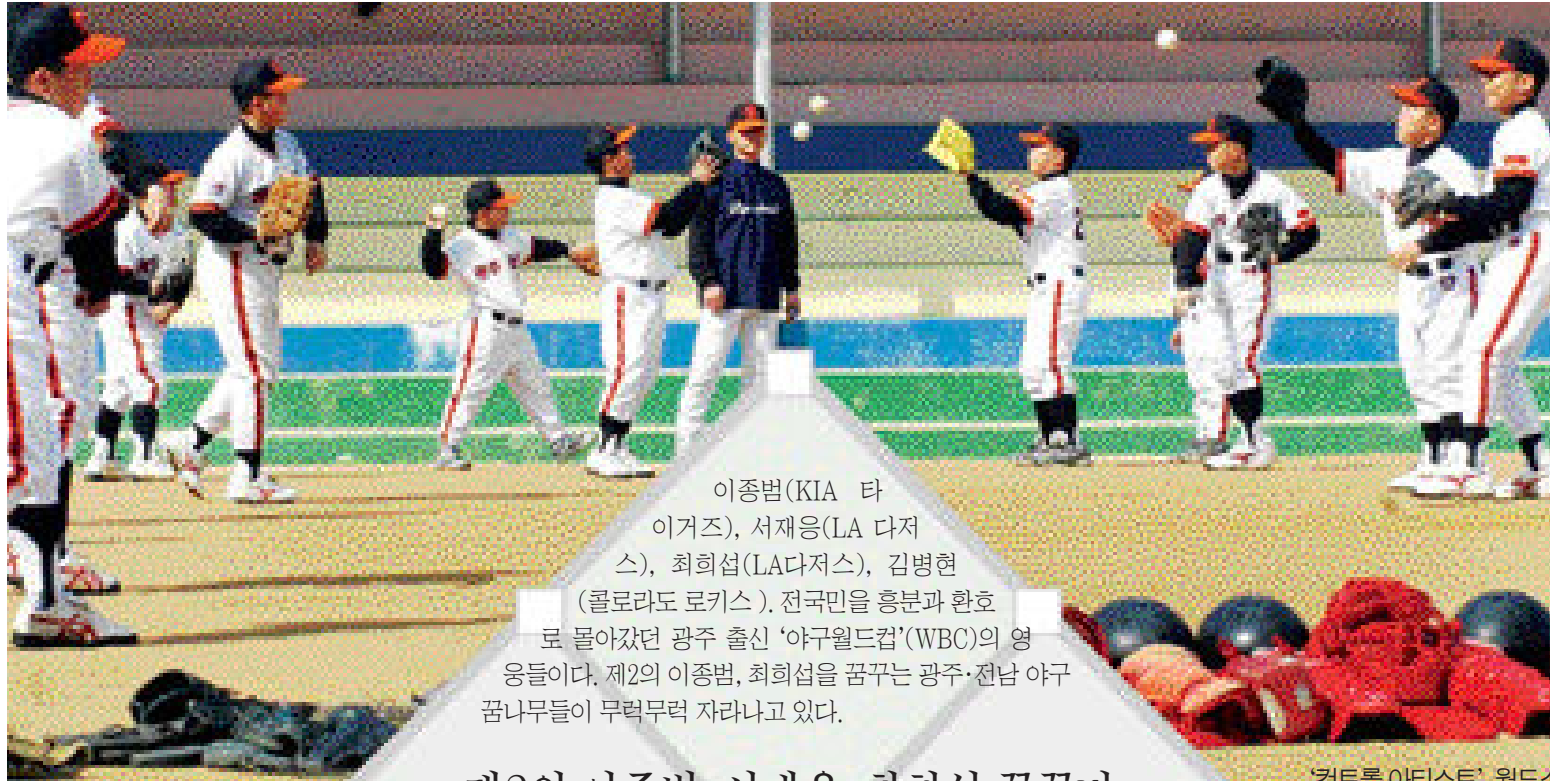
- 식품 집중 탐구-고등어 ⑬



- 즐거운 골프 실전 클리닉 ⑭

쑥쑥 자라나는 한국야구의 희망

‘4강 신화’ 뒤엔 광주 유소년야구 있었다



이종범(KIA 타 이거즈), 서재응(LA 다저스), 최희섭(LA다저스), 김병현(콜로라도 로키스). 전국민을 흥분과 환호로 몰아갔던 광주 출신 ‘야구월드컵(WBC)의 영웅들이다. 제2의 이종범, 최희섭을 꿈꾸는 광주·전남 야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제2의 이종범·서재응·최희섭 꿈꾸며
 광주·전남 초·중·고교 23개팀 ‘구슬땀’
 “잔디구장서 부상걱정 없이 운동하고파”

한국야구의 영웅 메카로 떠오른 광주·전남 유소년 야구의 맥을 이으려면 꿈나무들이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학교와 동창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야구인들과 시민들은 “광주 야구의 명성을 이을 유소년 야구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우수지도자 영입, 훈련공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돛구장도 건립, 광주를 월드스타를 배출하는 한국야구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초중고교 야구팀은 모두 23개.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교가 야구 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팀이 있다. 광주지역의 학교 야구팀 숫자는 10년동안 변함이 없지만 전남의 경우는 팀 해체와 재창단을 반복하고 있다.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대한야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9개였던 전국 초등학교 야구팀이 지난해에는 109개로 감소했다. 4년 사이에 10개가 없어진 것이다. 중학교도 지난 2001년 85개였던 팀이 지난해에는 79개로 6개팀이 줄어들었다.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겨우 올해부터 종목에 관계없이 한 학교당 1년에 지도자 지원금 1천4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결국

야구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연 2천100만~3천만원에 달하는 초·중·고 감독들의 연봉과 연 1천400만~1천800만원에 이르는 코치들의 연봉 중 지도자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모두 학부모 회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중·고등학교는 동창회 등에서 선수단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도 하지만 동창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초·중학교는 야구선수 학부모 1인당 한 달에 10만~15만원 정도를 추렴해 꾸려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04년 유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들어 처음 입문하는 초등학교 선수에게는 유니폼 등 개인당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KIA 타이거즈도 일부 학교에 용품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소년 야구활성화에는 큰 보탬은 못된다.

야구관계자들은 우수지도자 영입을 위해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경기장 등 훈련시설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개 돛구장 건설비용이 6천여여원에 달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광주에 한국 최초의 돛구장 건설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일 무등중학교 감독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금전적 부담으로 야구를 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컨트롤 마스터” 월드스타 서재응을 배출한 25년 전통의 ‘야구명문’ 광주 화정초교 야구 꿈나무들.
 /위직림기자 jwli@

檢, ‘론스타’ 계좌추적

국제청과 압수물 합동분석...내주 관계자 소환

감사원 “인수자격 검증”

감찰이 론스타 사무실과 론스타 핵심 관계자 자택 및 문서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려 70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국제청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감찰은 론스타 핵심 관계자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등 론스타의 147억원 탈세 및 860만달러 외환도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지난달 31일 “어제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에서 100상자 분량의 서류를 가져왔고 리아 문서보관 창고에서 600여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봉인조치하고 이중 70상자 분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일단 가져온 170상자 분량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문서창고에 봉인된 나머지 서류들도 순차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서류의 90% 이상이 영문으로 작성돼 있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영문자료 상당수가 론스타 영업과 관련된 전표와 교신서류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 국제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찰 내부에서도 론스타 자료분석을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찰은 전남 자택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론스타 핵심 관계자 5명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론스타의 탈세 및 횡령 혐의 등을 입증할 단서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감찰은 압수물 분석 및 계좌추적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론스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 여부 ▲외환은행 인수자금의 국내 조달 의혹 ▲매각 추진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한명숙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재산·납세·병역·학력·경력·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이날 재가한 뒤 이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대로 한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이틀 이내에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특위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062-970-0114 ~ 062-970-0101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s.ac.kr
 062-959-9591 ~ 062-960-9000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한재능 개념으로
 세기 첨단보청기 기술의 4대특징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